

(716)

조선

주제 105
(2016)

2





차례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기념비적창조물·····	1
나라의 왕들을 위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나날에·····	8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 비끼는 불멸의 업적·····	10
자력자강의 창조물-지하전동차·····	14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로력적성파로 · 현대화된 어린이식료품생산기지로·····	16
· 과학적인 종어체계를 확립하여·····	18
대규모축산기지로 변천되는 세포지구·····	20
사진을 통해 본 오늘의 조선·····	24

건축창작에 바쳐가는 지혜와 열정·····	28
창광상점의 새 모습·····	30
전기공학과 함께 60여년·····	32
평양문화전시관·····	34
두번다시 태어난 소녀·····	36
《그들은 장애자가 아니다》·····	38
우주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토론회·····	40
우표발행·····	40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제카나다목사 림현수에 대한 재판·····	41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1월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기념비적창조물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친어버이정도로 따듯이 품어안아 보살피 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11월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어린이들을 왕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78(1989)년에 건설된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 교양기지이다.

두해전 5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백수십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떠받들려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로동당시대의 멋쟁이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전변되였다.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꿈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축재들을 가지고 장식하니 궁전자체가 품위있으면서도 정말 보기좋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건축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과시하는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궁전현관홀에 새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명제를 보시고 밝고 정중히 잘 모시였다고 하시면서 주옥같은 친필의 글발을 한자한자 읽어보느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였는가를 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신 다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과학홀과 예능홀, 소조실들과 2 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극장, 수영관, 체육관, 체육소조실, 야외에 건설한 체육장, 자동차운전실습장 그리고 궁전 합숙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 교양기지이라고 하시면서 궁전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 사랑속에 전변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북반은 학생소년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글 김래현



부분, 체육부분의 소조실들이 있으며 4층으로 되어있는 예술종합훈련장에는 무대공연을 보장할수 있는 예술부분의 소조실들과 훈련실들이 꾸려져있다.

또한 2 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극장과 여러 가지 체육경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체육관과 수영관이 있으며 도서관과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전자유희오락관과 톨동영화관, 천문지식보급실과 선물동물표본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중활동기지들도 있다.

야외에는 자동차운전실습장과 체육장, 목지공원이 꾸려져있으며 지방의 학생소년들이 숙식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꾸려진 합숙과 종합적인 편의봉사건물이 새로 건설되었다.

궁전에서는 지난 기간 청소년과의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세계젊은음악가 손품금쿨》 특등상과 금컵수상자를 비롯하여 재능있는 예술인재들과 조국의 영예를 떨친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등 수십명의 체육명수들을 키워냈다.

지난 기간 궁전을 찾은 14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당수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조선의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 궁전 학생들만 보아도 조선의 앞날을 확신할수 있다, 나도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어린이로 태어나 여기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배우고 싶다.》고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요람, 아이들의 궁전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학생소년들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더 높이, 더 힘차게 부르며 자기들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사진 리명국, 안철룡, 김윤혁 글 김충복

나라의 왕들을 위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조선에서는 이르는 곳마다에 청소년과의 교육교양의 거점들을 꾸려놓고 학생소년들의 희망을 꽃피워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학생소년들의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 인재교육의 원종장으로 웅장하게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도 그중의 하나이다.

주체78(1989)년에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꽃피워왔다.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개건되었다.

궁전에는 하루에 5 000여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동시에 과외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소조실과 활동실, 훈련장이 148개로 늘어났을뿐 아니라 아이들의 동심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갖추어져있다.

7층으로 되어있는 기본청사에는 학생들의 지적체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부분, 예능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준공레프를 끊는 학생소년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명제를 새로 모신 현관홀



천문지식보급실과 선물동물표본관, 솜씨전람실도 꾸려져있다.



아이들의 동심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꾸려진 과학홀(왼 쪽)과 예능홀(오른쪽)



학생소년들은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예술적기량을 쌓고 과학의 나라를 펼쳐가고있다.



국제경기도 진행할수 있게 꾸려진 수영장(우)과 체육관(아래)



태권도소조를 비롯한 여러 체육소조를 운영하고있다.



아외에 건설한 자동차운전실습장과 체육장



2 000명 수용능력을 갖춘 극장



새로 꾸려진 합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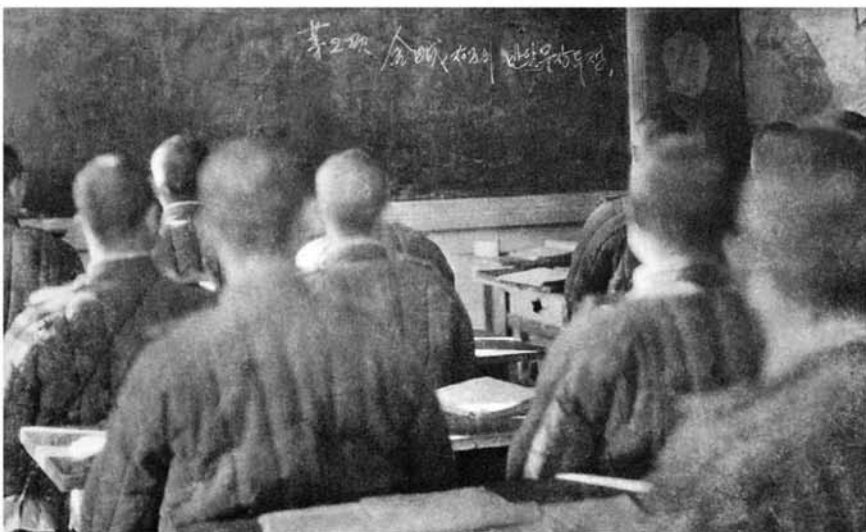


평양학원 개원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2월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나날에

2월 8일은 조선인민의 건군사에 빛나는 자욱이 아로새겨진 날이다. 바로 68년전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의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해방(1945. 8. 15.)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주되는 힘을 넣으시였다. 당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규군창설에서 군사정치간부육성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정규적인 교육기관을 내오도록 하시고 그것을 확대강화해나가시였다.

주체34(1945)년 11월 당시 평안남도 통강군 다미면 지율리에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사정치간부양성의 모체기지인 군사정치학원터전을 잡아주시고 《평양학원》이라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평양학원은 현대적정규무력건설에 이바지할 첫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였으며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정규적군사교육기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학원을 찾으시여 학원개원을 축하하는 연설도 하시였으며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제1기 첫 강의도 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평양학원의 명예원장이 되시여 학원의 군사교육사업을



정규적군사교육기관들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군사정치교육과 훈련에 큰 힘을 넣었다.



평양학원 교직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2월

세심히 지도하여주심으로써 평양학원은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요구되는 군사정치간부들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각 병종, 전문병의 군사간부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내기 위해 평양학원의 군사간부양성기능을 분리하여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내오도록 하시고 그 터전도 잡아주시였다. 주체35(1946)년 7월 평양학원에서 중앙보안간부학교를 갈라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사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군사교육경험을 잘 살려 조선의 실정에 맞는 군사지식을 주는것이 기본이라고 그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여러차례 나가시여 주체적인 훈련방법과 교육방법을 탐구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군사교육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는 군사규정과 훈련교범 및 교육강

령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만들고 학생들에 대한 군사정치교육과 전투훈련을 주체적인 군사교육체계에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대적인 공군과 해군건설구상을 펼치시고 평양학원에 항공반을, 주체36(1947)년 7월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를 내오시여 이 부분의 군사간부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사정치간부육성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심으로써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들이 수많이 자라나고 정규군창설사업은 힘있게 추진되어 마침내 조선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무력으로 보위하는 정규적혁명무력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건군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오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그 위용 떨치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해나가고있다.

글 최영호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 비끼 불멸의 업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 인민은 주체의 건축사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평양의 대동강반에 자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와 같이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이며 개선문, 5월1일경기장과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와 광복거리 등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과 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1980년대의 평양번영기 그리고 20리 날바다를 가로막고 일떠세운 세계굴지의 서해갑문 등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주체건축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다.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건축창조사업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위대한 사업이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보람찬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건축발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건축예술론》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건축발전을 위해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인민대중중심의 건축,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옹계 결합한 건축 등 주체건축의 혁명적본질과 특징 그리고 그 구현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과 실천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주체건축의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백과전서적인 사회주의건축강령으로, 지침으로 되였다.

건축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발전하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참신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 나가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건축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심으로써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하여 내용에 있어서 혁명적이고 심오하며 형식에 있어서 독특하면서도 규모가 웅장한 대기념비들이 전국각지에 수많은 일떠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에서 언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편속공격의 방법으로 건설을 밀고나가 최단 기간내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20리 날바다위에 언제를 쌓는 어렵고도 방대한 서해갑문건설에서도 최상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완공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여 단 5년동안에 건설공사를 완공하도록 하는 20세기 인류의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현대조선건축사에는 락원거리건설 불과 반년사이에, 창광거리(1단계)건설 10개월, 광복거리와 청춘거리를 비롯한 평양시 260여개 대상건설은 불과 2년남짓한 기간이라는 수자가 대서특필되어있다.

인류건축사에 특기할 기적으로 불리우는 이 수자들은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안아온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성, 비상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격력, 강철의 의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주체건축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제보로 길이 빛나고있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령도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건축의 대번영기로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사진, 글 김충복



인민대학습당모형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12월



대동강반에 일떠선 주체사상탑



개선문



조선로동당마크를 형상하여 세운 당창건기념탑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건설된 서해갯문



전민학습의 전당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위대한 항도의 손길아래 일떠선 수도 평양의 일부

자력자강의 창조물-지하전동차



평양시에 위치하고있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는 여러가지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 전동차, 궤도전차와 객차를 전문생산하는 기업소이다.

기업소를 몸소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분배와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점령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기업소에 주시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합심하여 설계로부터 제작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국산화된 지하전동차개발에 달라붙었다.

과학자, 연구사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고속도차단기제작을 수십차례의 모의시험을 진행하여 마침내 차단시간이 더 빠른 고속도차단기를 단번에 성공시켰다.

과학자, 연구사들은 값비싼 유색금속을 70%나 절약하면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수 있는 제동체계를 완성하고 기업소로동계급이 만든 유압감진기를 도입하는 등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갔다.

기업소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목형준비와 주강소제, 차틀, 축별괄조생산을 앞세우면서 1만 3천여종에 12만 3천여개나 되는 부속품가공을 단 5일동안에 끝냈다.

또한 보통때 같으면 6개월 걸리는 제관작업량도 단 50여일만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냄으로써 짧은 기간에 완전국산화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내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올해에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계열생산하여 대중교통수단



들을 더 많이 보장할 일념으로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사진 진영호 글 김효심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실현되었다.



평양시 평천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어린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특별한 관심을 자아내는 공장이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시책속에 주체66(1977)년 10월에 조업한 공장은 것처럼 어려웠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공을 비롯한 원료들을 전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며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오고있다.

지난해의 10개월 남짓한 기간에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훌륭히 실현되여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공장에서는 지금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이 더 높이 울리고있다. 콩우유가루직장과 콩신젓직장, 애기젓가루직장과 영양암가루직장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새겨진것은 지난해 11월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공장을 찾으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생산정상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이다.

공장에 실현된 다차원적인 통합생산체제를 통하여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실리가 나게 짜고드는것과 함께 원료보장체제와 과학적인 품질관리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설비관리를 정상화하여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와 함께 세계와 경쟁할수 있게 식료품의 맛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담보되는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등이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하여 종업원들의 실력을 한단계 높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들과 결부되여 적극 추진되고있다.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보내주려는 공장종업원들의 지성에 의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사진 리명국 글 최광호



생산과 기업관리,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과학적인 종어체계를 확립하여



양어를 적극 발전시키고있는 조선에서는 최근
년간 바다양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조선 동해 락산만수역에서는 대서양연어며
칠색송어들이 떼를 지어 육식거리고 석막대서
양연어종어장에서는 바다로 나갈 새끼연어와
칠색송어들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고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급어족의 하나인
대서양연어양어를 실현하여 인민들이 보다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시책에 따라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에서
연어알깨우기를 시작한것은 주체96(2007)년
부터였다.

당시 자그마한 시험장에 불과하였지만 일군
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을 위한 나라의
제부를 창조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펼쳐
나섰다. 그들은 대서양연어의 생물학적특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알깨우기며 새끼고기기르기
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갔다.

물온도와 산소, 깨끗한 환경에 예민한 대서양
연어의 특성에 맞는 물원천을 찾아냈을뿐아니라

산소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
놓았다.

그리고 새끼고기들의 성장단계에 따르는 물
온도와 산소량, 밀도와 먹이의 영양성분보장
등 사육방법에 대한 연구에 힘을 넣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실패속에서도 그들은 성
공의 싹을 찾아내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대서양
연어종어생산의 과학화, 공업화를 실현하였을
뿐아니라 종어장을 현대적인 종어생산기지로
전변시켰다.



수직당반식부화기



어린고기사육실



분석실



수려한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서고 수정갈
이 맑은 물이 사철 흘러내리는 강기슭의 아담
한 곳에 원형못을 비롯하여 각이한 모양과 크
기를 가진 150여개의 야외양어못들이 바둑판
처럼 펼쳐져 오늘 종어장은 동화세계의 물고기
동산을 방불케 한다. 한쪽의 그림같은 종어장
에는 수직당반식부화기들이 줄지어 서있는 알
깨우기실이며 갓난고기와 어린고기사육실,
새끼고기비육실과 같이 연어새끼고기들의 성

장단계에 맞게 꾸려진 실내호동들 그리고 종합
조종실, 분석실, 사료가공장, 물려과장 등 모든
공정들이 다 갖추어져있다. 과학적인 종어체계
를 확립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
여온 종어장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 두단계로
나누어 많은 대서양연어새끼고기들을 생산
하여 바다연어양어사업소에 보내주고있다.

종어장에서는 대서양연어새끼고기만이 아
니라 칠색송어새끼고기도 키워 바다양어사업

소에 보내주고있으며 산천어, 룡정어 등 여러
가지 물고기양어도 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려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의 양어못마다
에는 새끼고기들이 육식거리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현희

세포등판은 강원도의 세포와 평강, 이천지구의 광활한 대지로서 해발고가 평균 600여m이며 예로부터 눈과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센 것으로 유명하다.

하여 잡관목과 새초들만이 무성하고 쓸모없이 버림받아오던 땅이다.

그러던 이 등판이 오늘은 희한한 전망을 가진 축산기지로 변모되고있다.

인민들이 보다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개간자들이 세포등판으로 달려왔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누가 가져다주는것도 아니다.

우리 손으로 행복을 창조하자!

이런 마음을 안고 달려온 개척자들이기에 겨울에는 개간전투를 할수 없다는 기존관념을 깨뜨리고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도 자연을 정복해나갔다.

그들은 순수 땅만을 갈아엎지 않았다.

17만여t의 소석회와 100여만t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등판에 실어내면서 산성화된 토지를 개량하고 토양속의 영양물질함량을 늘였다.

모든 대상들을 용도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쓸모가 있으면서도 자연풍치와 잘 어울리고 먼 후날에 가셔도 손색이 없게 건설해나갔다.

개간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잡초 무성한던 등판에는 눈썹리 아득하게 인공

풀판이 펼쳐지고 여기에 배수로와 수백정보의 바람막이숲, 1만 2 600여정보의 풀판보호림이 형성되어 비가 많이 내려도, 사철 바람이 세게 불어도 풀판들을 보호할수 있게 되었다.

끝간데없이 련련히 뻗은 산밭을 따라 조성한 자연풀판 또한 그것을 다 돌아보자고 하여도 머칠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근 2 000km의 방목, 운영도로도 새롭게 형성되었다.

방대한 지역에서의 축산물생산을 통일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게 될 종합생산지령실, 축산학연구소, 종축장, 수의방역소 등이 훌륭하게 꾸려졌다.

바람세찬 세포지구의 특성에 맞게 풍력발전기와 양수기들을 설치하고 자연에네르기를 리

용하여 축산기지근로자들의 생산 및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특히 메탄발효액과 찌끼를 리용하여 풀판관수, 담새온실에서의 수경재배, 버섯기르기, 양어, 축산을 다같이 할수 있는 리상적인 고리형순환생산체계도 세워지고있어 이 땅에 펼쳐지고있는 전변의 자량을 더해주고있다.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개척자들의 애국충정으로 하여 세포등판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청춘대지로 나날이 젊어지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여러곳에 인공풀판, 자연풀판이 조성되고 축산기지가 건설되었다.



수지방역소



세포리관



성산원





백두산해돋이 촬영 김영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수족관 촬영 송종건



사진을 통해 본 오늘의 조선



포구의 《이채어경》 촬영 신충혁



우리 장군님 보시었으면 촬영 임철



바다면 자강도의 양어풍경 촬영 김광철



백두산천지 촬영 최경국



삼지연못가의 가을 촬영 허성길



여름철의 마전해수욕장 촬영 김성철



마식령스키장에서의 즐거운 하루 촬영 박명일



양로원의 김장철 촬영 홍훈



인민의 기쁨과 환희 《무지개》호에도 촬영 김선영



불빛 밝은 미래과학자거리의 야경 촬영 강철호

건축창작에 바쳐가는 지혜와 열정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건축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여 능력있는 설계가, 건설기술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한편 건설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건축을 세계적인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서게 될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설계형성이 제기될 때마다 대학에서는 유능한 교원, 연구사들로 설계집단이 꾸려진다. 여기에는 또한 실력이 높은 박사원생들과 학생들도 망라되는데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창작력을 계발시키고 실천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뜻깊은 해로 기록된 주체102(2013)년의 4월과 5월, 6월에도 대학의 건축창작집단은 청춘거리 체육촌의 여러 경기관개건형성안을 비롯한 수십건의 건축형성설계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대학의 연구집단은 《기념탑 붉은 기복의 3차원곡면공간 돌출이공법》을 내놓아 제12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이어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 수여하는 최고 발명가상 상장과 메달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건축설계부문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포부를 지니고있는 이곳의 교원, 연구사들에 의하여 주체103(2014)년에도 위성과과학자 주택지구의 종합편의시설과 봉사건물을 비롯한 여러 대상의 건축설계형성안들이 완성되었으며 조선혁명박물관과 세포지구 축산기지, 중앙동물원과 평양민속공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5월1일경기장 등 새로 개건하거나 일떠세우는 건축물들에 대한 수많은 형성설계들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국내원료를 리용하는 다기능성마감건재의 개발과 컴퓨터조종 건물진동시험장치의 개발 등 의의있는 과학연구성과들도 이룩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은 지난해에 평양시버섯공장과 평양시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이들은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도 창조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 10개의 전시관들에 대한 실내 및 야외전시형성안을 비롯한 방대한 설계과제들을 제때에 수행함으로써 그 완공에 큰 기여를 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원산육아원, 애육원,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비롯한 건축물들과 건설대상들마다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가려는 이들의 노력이 깃들여있다.

오늘도 평양건축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의 영예로운 사명을 안고 나라의 건설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진 진주동 글 정기상



창 광 상 점 의 새 모 습



평양의 품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미래과학자거리와 함께 일떠선 창광상점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 흥성이고있다.

주체72(1983)년 11월에 창립된 창광상점은 지난해 미래과학자거리에 새로 건설되면서 본래보다 2배나 더 커졌고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할뿐아니라 보기에도 이쁠데었다.

연건평이 7 200여㎡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된 상점에는 경질 유리그릇, 수지그릇,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문화용품, 운동용품을 비롯한 갖가지 상품들을 갖춘 20여개의 매장이 있다.

현대적인 수직승강기와 계단승강기가 설치되어있고 아동놀이터, 청량음료점도 있다. 실내온도보장을 위한 지열냉난방체계가 구축되어있으며 상품보관과 판매,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하여 보내준 갖가지 상품들이 그득한 상점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상점봉사자들의 친절성 또한 그지없어 창광상점은 언제나 흥성이고 있다.

사진, 글 진윤희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전기기계연구실 연구사
원사 교수 박사 조덕희

전기공학과 함께 60여년

등의 학과목들을 새로 개척하였으며 9명의 박사를 비롯한 수십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다.

후대교육사업과 함께 그는 나라의 전기공학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도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원판형전기기계설계방법》을 비롯하여 국내외잡지들에 80여건의 소논문들을 발표한 그는 6건의 발명권도 받았다.

이러한 공적으로 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과 김정일상, 많은 훈장과 메달, 원사, 교수, 박사의 학위학직을 수여받았다.

뿐만아니라 여러차례 전국교육일군대회와 전국지식인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주체102(2013)년 11월에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주체103(2014)년 2월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여든번째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오늘도 로교수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육성에 생의 자옥을 새겨가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선경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전기기계연구실 연구사 조덕희, 여든살이 넘은 그가 오늘도 정력에 넘쳐 나라의 전기공학발전에 헌신하고 있는것은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남달라서이다.

그가 전기공학과 인연을 맺은것은 60여년전이었다.

당시 나라에서는 그의 재능을 귀중히 여기어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었다.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세월 품팔이군의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들의 고된 로동의 대가로 겨우 소학교를 다닌 그였다.

해방(1945. 8. 15.)이 되어서야 그도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수 있었다.

하기에 그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에게는 고마운 조국의 품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후복구건설로 들끓는 조국과 숨결을 함께 하며 밤낮이 따로 없이 전기공학분야에 대한 지식의 탐을 쌓아나갔다.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김책공업대학(당시) 교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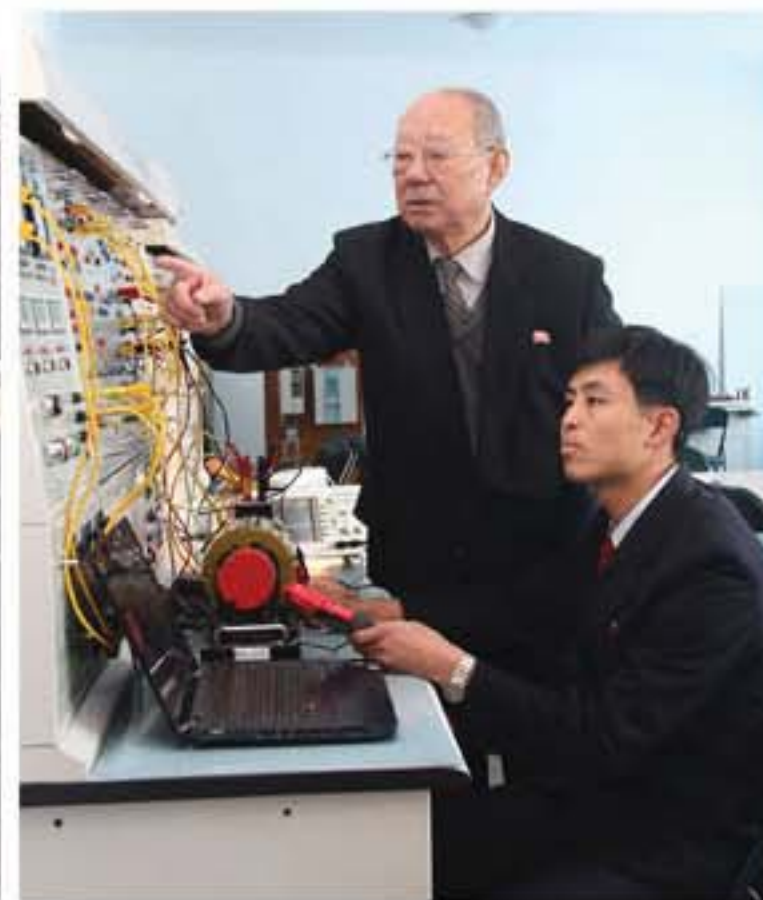
조국의 고마움을 가슴속깊이 새긴 그였기에 꼭 훌륭한 기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것으로써 보답의 길을 걷고싶었던것이다.

그의 이런 마음은 그가 집필하고 제작한 《전기기계모형화》, 《전기에너지변환기》를 비롯한 50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과 70여종의 실험기구들에 어려있다.

그는 지금까지 《전기기계》, 《전기기계설계》, 《전기기계구조제산》



기술인재양성에도 이바지하고있다.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조덕희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가정에서

평양 문화 전시관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문화전시관은 주체87(1998)년 9월에 개관되었다.

지난 10여년간 전시관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나날이 변모되는 조선의 현실과 사회주의 제도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조선의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는 각종 도서들과 조선화, 유화를 비롯한 미술작품, 수공예품들을 전시하여 여기를 찾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리해를 도모해주는데 이바지하여왔다.

연건평이 2 000㎡인 전시관에는 사진, 도서, 미술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는 기본전시홀과 참관자들이 영화감상과 여러가지 모임을 할수 있는 면담실, 휴게실이 있다.

2층전시홀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미술작품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사진 및 도서전시실에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비상히 강화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고전적로작들, 조선에 대하여 소개한 화첩, 접지, 엽서들과 여러가지 주제의 다매체편집물들, 도서들이 전시되어있다.

전시홀에는 주체미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수예, 서예를 비롯한 여러가지 미술, 수공예품들도 전시되어있다.

뿐만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0만년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류역이 고대인류문명의 발상지임을 보여주는 고고학적유물자료들과 조선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였던 고조선(B. C. 30세기초-B. C. 108년)으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는 5 000여년이라는 오랜 력사적기간 조선민족이 하나의 피줄을 잇고 살아오면서 창조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을 보여주는 력사유적유물의 일부가 건축장식 벽화로 형상되어있다.

지난해 10월 전시관은 참관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홀을 개건하였다.

전시물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조형예술적으로 새롭게 확장된 전시홀은 많은 자료들이 더 전시되어 조선의 력사와 문화, 발전하는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평양문화 전시관을 찾고있다.

사진, 글 안철원





학급동무들과 함께(오른쪽으로부터 네번째)

두번다시 태어난 소녀



사경에 처한 김진미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달려온 청년대학생들
주제 103(2014)년 11월



전신3도화상을 입었던 당시 김진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지난해 3월초 어느날, 한 어린이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남포시소아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름은 김진미, 나이는 6살.

평범한 군인가정의 막내딸인 그는 다섯달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전신3도화상을 당하고 병원으로 실려왔었다.

당시 그는 의식이 없고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호흡수는 분당 40회였다.

함께 온 그의 어머니도 거의나 딸의 생명을 포기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즉시 의사협의회를 열고 구급치료를 무어 진미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에 달라붙었다.

외과과장 정현철을 비롯한 구급치료조는 주야간 집중치료에 들어갔다.

병원에서는 시시각각 환자상태가 변화되는데 맞게 먼거리의료봉사체제를 통한 중앙병원들과의 연계도 긴밀히 하면서 정확한 치료대책들을 세워나갔다.

환자의 독혈증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근 1 000mL의 피와 혈장을 수혈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씩 진행된 피사조직들의 절제수술, 피부이식수술때에도 10여차의 수혈과 수십여종의 약물, 영양제투입이 진행되었다.

담당치료조와 함께 병원안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진미를 완쾌시키기 위해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남포시위원회 일군들과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들중 진미를 이미부터 알고있던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저마다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겠다며 수술장문앞에서 봄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진미의 부모들과 병원의 환자들은 눈물을 금치 못하면서 사회주의 내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신문과 텔레비존을 통해 이러한 소행들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현실로 목격하기는 처음이라고 자기 감정들을 터놓았다.

어린 진미는 의사선생님들이 왜 140여일의 입원생활기간 귀중한 피와 약들을 무상으로 자기에게 써주면서 정성다해 치료하였는지

알수 없었다.

또 어째서 낮모르는 수많은 오빠, 언니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그림책도 읽어주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해주면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애썼는지를 다 알수 없는 진미였다.

그러나 장차 세월과 함께 그도 알게 될것이다.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내 나라, 모두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회주의조국이 얼마나 고맙고 귀중한가를.

현재 김진미는 와우도구역 갑문소학교 1학년생이다.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손풍금과 가야금을 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시력, 청력, 지체장애자들

《그들은 장애자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제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에서 진행된 예술공연에 출연한 장애자들의 높은 예술적기량과 활기에 넘친 모습은 참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공연에서 성악과 기악, 무용은 물론 교예와 요술까지 펼쳐보인 그들은 시력, 청력, 지체장애자들이었다.

피아노를 위한 기악중주종목에서 피아노독주를 한 차광혁과 타악기연주를 한 박진리, 손풍금독주에 출연한 강은혁은 보지 못하는 장애자였지만 정확한 음정과 짜임 안삼블로 하여 전문예술인들 못지 않은 공연장면을 펼쳐보였다.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던 청력장애자들인 류진혁과 주수양이 출연한 2인무용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와 동화무용 《백설공주와 일곱명의 난쟁이》는 음악선율에 맞게 아름답고 우아한 물동을 펼쳐보이면서도 작품의 내용을 훌륭히 형상하여 보여줌으로써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흥을 주었다.

참가자들의 주목을 끈것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원성민이 출연한 요술이었다.

통속에 들어간 3륜차를 탄 장애자처녀가 원인모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가 상상밖의 곳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을 환상세계에로 이끌어간

뛰어난 요술적재능으로 하여 그는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장애자들의 공연은 높은 예술적재능과 함께 열정에 넘친 자기들의 모습을 담은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혼성중창 《조국찬가》, 피아노를 위한 기악중주 《내 심장의 목소리》, 춤과 노래 《행복의 레일》,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의 종목들에서 그들은 장애자들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소질과 재능도 마음껏 꽃피우며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기념모임에 참가한 주조 여러 나라 대사들과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은 장애자들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높은 음악적기량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도 하는 장애자들의 공연이 정말 매혹적이다.》

《하나같이 밝고 명랑하며 활기에 넘쳐있는 저 모습을 보고서야 누가 장애자들이라고 하겠는가. 그들은 장애자가 아니다.》

이것은 기념모임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사진 김윤철 글 김태현





우주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토론회



평화적인 우주개발에 힘을 넣고있는 조선에서는 지난해 11월 우주과학기술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국가우주개발국, 국가과학원, 사회과학원, 교육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위성기초과학분과, 위성응용기술분과 등 여러 분파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우주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 교육부문 단위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 우주과학기술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반영한 수백건의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로동당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있게 서술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보다 발전된 지구관측위성들과 통신위성개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한 논문들, 인공지구위성으로부터 받은 화상자료들을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있게 해명한 가치있는 논문들도 소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우주개발과 리용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수십건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논문제출자들에게 발표증서가 수여되었다.

토론회는 실용위성개발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나라의 우주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현희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카나다목사 림현수에 대한 재판

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며 사실심리가 진행되었다.

심리과정에 피소자는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였으며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종교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서와 해외동포들에게 공화국에 대한 악선전을 하고 미국과 남조선 보수패당이 벌리는 공화국 공민들에 대한 유인람치행위와 《탈북자지원》책동에 가담한것을 비롯하여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모든 죄파를 인정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이 언도되었다.

사진, 글 홍광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국가정치테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카나다목사 림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림현수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

우 표 발 행



